

무로미야야마(室宮山) [무로노오바카(室大墓)] 고분 [고세시 무로]

나라현 고세시(御所市) 무로(室)에 있다. 분구길이 238m의 전방후원분으로 나라분지 서부 지역(가즈라키(葛城) 지역)에서 최대 규모이다.

고세야마(巨勢山) 산의 구릉 위에는 총 500기나 되는 군집분인 고세야마 고분군이 있는데 바로 북쪽의 평탄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전방부를 서쪽으로 했을 때 전방부 북쪽에 방형으로 돌출된 장출부(張出部)가 있다. 주호(周濠)의 흔적은 명료하지 않지만 북쪽의 제방 위에 딸린 무덤(倍塚)으로 보이는 한 변 70m의 방분인 네코즈카 고분이 있다. 현재 네코즈카 고분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분구 남동부는 연못이다. 본래는 방패모양의 주호가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구는 3단 축조이고 외부시설로는 이음돌(葺石), 하니와 열이 확인되었다.

후원부의 분구 꼭대기에 남북으로 2개의 매장시설이 있다.

남쪽의 매장시설은 다쓰야마이시(竜山石)제의 장지(長持; 켈 형태의 수납구)형 석관을 내장한 수혈식석실이고 심한 도굴을 당했지만 청동거울 편, 활석제·벽옥제 구슬류나 활석제 모조품, 기러기발 모양(琴柱形) 석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식 석실의 천정석 윗면에는 하니와가 세워져 있었는데 직호문(直孤文)을 새겨 붉은 칠을 한 방형의 기둥 위에 가쓰오기(鱧魚木; 일본의 신사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지붕 장식)로 용마루와 직각으로 늘어놓은 장식용 통나무를 장식한 팔각지붕(入母屋造)을 얹은 대형 가형(家形) 하니와(높이 121cm)와 굽다리 접시형(高环形) 하니와다. 또 이 수혈식 석실을 방형으로 둘러싸는 하니와 열도 확인되었는데 투구(冑)와 방패(盾)를 조합한 하니와(높이 141cm), 방패(盾)형·화살통(靫)형·대퇴부가리개(草摺)형 하니와가 표면이 밖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쪽 하니와 열 앞 부분에 맞배지붕(切妻造)이나 우진각지붕(寄棟造)을 얹은 가형 하니와가 합계 4동 서 있었다. 이 형상하니와는 모두 실물을 정확하게 재현한 정교한 대형품으로 일본의 고분문화를 대표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중심부에 배치된 대형 가형 하니와는 고쿠라쿠지(極樂寺) 히비키(ヒビキ) 유적에서 확인된 대형 굴립주 건물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고쿠라쿠지 히비키 유적은 고분의 남서방향에 있는 대규모 집락유적인 난고(南郷)유적군에 포함되는데 이 건물은 당시 수장이 정치를 펼친 「다카도노(高殿; 누각과 같이 높게 만든 건물)」에 해당한다. 실제 정치를 펼친 장소가 하니와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예이다.

북쪽의 매장시설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혈식 석실의 천정석이 노출돼 있다. 또 한반도 남부의 가야(伽耶) 지역에서 생산된 배(舟) 모양이나 굽다리 접시 모양의 도질 토기의 파편이 채집되어 있는데 본래는 석실 안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방부에는 2기의 매장시설이 있고 11매의 청동거울이나 170점 이상의 구슬류 등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현재는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목관재가 출토되었는데 본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또 전방부의 장출부 꼭대기에서도 매장시설의 점토곽이 확인되었고 옷칠제품, 쇠칼(鉄刀), 갑옷(甲) 편, 쇠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 축조연대는 중기 초두(5세기 초두)이고 대왕분에 필적하는 규모와 내용을 가진다. 가즈라키 지역에서는 지배자층의 분묘로서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하겠다.